



교과서에 서술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고찰 문학교과서(7차 교육과정)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Dangun and Old Joseon of a textbook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of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

저자 (Authors)	이재원 Lee Jae-Won
출처 (Source)	단군학연구 ,(16), 2007.6, 187-211(25 pages) Journal of Dangun Studies ,(16), 2007.6, 187-211(25 pages)
발행처 (Publisher)	단군학회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65554
APA Style	이재원 (2007). 교과서에 서술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고찰. 단군학연구(16), 187-21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1 16: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교과서에 서술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고찰*

— 문학교과서(7차 교육과정)를 중심으로 —

이재원**

I. 서론	3. 문학적 학습내용 서술 비교
II. 문학 교과서에서의 ‘단군과 고조선’	4. 분석 결과와 제언
1. 신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학습 내용	III. 결론
2. 문학 교과서에서의 단군신화 학습 내용	

I. 서론

지난 5월 17일 분단 후 50여 년 만에 남북간 철도가 임시 개통되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금강산에서 강원도 체진까지 시험운행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커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였다고 한다.¹⁾ 앞으로의 진행은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그간 정치적 이념으로 경직된 상황에서 민족의 통일,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불사르는 분위기 형성에 크게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연구교수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1) KBS 1TV 2007년 5월 17일 12시 뉴스.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제 기차를 타고 북한에 산재한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유적지를 여유있게 살펴보고 남북이 공동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상황을 기대해본다.

한편 금년 초에 참모로 반갑고 감동적인 발표가 교육부로부터 있었다.²⁾ ‘국사 교과서’에서 단군에 관한 서술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내용인 즉, <표 1>에서 비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B.C. 2333)’가 아니고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B.C. 2333)’라고 표현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의 청동기에 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볼 때, 고조선의 건국은 상향시킬 만하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보도 내용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강원도 정선과 춘천, 홍천, 경기도 가평, 경남 진주 등지에서 최근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전래된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또 서강대 이종욱 교수는 “중국이 고조선 건국 장소인 중국 요동지역 청동기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 한반도 청동기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³⁾

금년에 출판된 국사교과서를 즉각 구매해서 살펴보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⁴⁾와 현직 교사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 이어서 후속 조치도 발표하였다. 역사교육의 강화방안으로 2010 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사회’ 교과에서 ‘국사’와 ‘사회’로 나눠 ‘국사’ 과목을 독립시켰고 고등학교 1학년 국사 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⁵⁾ 또한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개설할 것을 밝혔다. 동아시아사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2) 연합뉴스 2007년 2월 23일.

3) 『단군나라』 통권 16호(현정희, 4340/2007), 10쪽.

4) 교육인적자원부 이인철 교육행정사무관.

5) 국학신문 4340(2007), 4월 7호, 4면.

한 동아시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간 남북은 냉전 상태에서도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문제 포함)과 ‘단군과 고조선’을 주제로 여러 차례 학술교류를 실현한 바 있다.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공동 대처에도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며 이에 관한 논의도 이제는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종교, 사상, 문학, 민속, 문화콘텐츠 차원 등 그 논의의 영역을 확대할 때라고 본다. ‘단군’은 할아버지로서 화석화(化石化)된 이미지를 벗어나 그토록 조심히 다룬 ‘태극기’를 이미지화하여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어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는 것처럼 활력있는 ‘단군 콘텐츠’에 관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노력은 수많은 역사학과 교사와 교수들이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사 교과서에서의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내용의 개정을 고려하면서 문학 교과서에서의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학습 내용들을 아울러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문학 교과서에서의 ‘단군과 고조선’

국사 교육에서 설화 학습의 교육적 기능은 국사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⁶⁾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6) 김명자, 『국사교육에서 설화학습의 교육적 기능과 효과적 지도 방안』,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볼 때, 문학 교과서에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하여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한층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문학 교육에서는 국사 교과서에서의 논쟁과 달리 ‘단군과 고조선’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단군신화’라는 단원을 설정하여 학습되어왔다. 3차 교육과정기(1973년) 이후 검인정으로 출간된 모든 문학(고전 문학 포함) 교과서에서는 교과목의 특성상 국사 교과서와 달리 단군신화라는 단원을 설정하여 학습하여 왔다. 여기서 신화라는 용어의 개념은 과거 일제(日帝)가 악의적으로 사용했던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다.

1. 신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학습 내용

단군신화 교육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신화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단군신화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올바른 지도이다. 일부 재야 사학자들은 역사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단군에 신화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신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다소 황당한 것 같은 신화의 내용 중에는 역사를 포함해서 종교·사상·철학·민속·문학 등의 내용이 상징적으로 두루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대한 교육에 앞서 신화에 대한 개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신화는 기원전부터 그리스에서 이미 연구가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중세 때부터 신화를 모든 학문과 문화의 원류로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세기 이후 신화는 독립된 학문, 신화학으로까지 취급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고고인류학은 물론 역사학, 민속학, 중

교학, 철학, 정치학, 문학, 예술 등 모든 학문의 원류로서 깊이 연구되고 있다.⁷⁾

고대인의 사고체계를 보여주는 신화는 이제 21세기 최첨단 과학을 비롯하여 상상력을 생명으로 하는 각종 산업에서 두루 활용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신화적 사고는 과학적 상상력과 유사하여 오늘날 우주공학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산업, 디지털 산업 또한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 이미 일반화된 정설이다. 따라서 단군에 신화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조선의 역사가 기원전 20세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과 단군신화 속에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비교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군신화 속에 더욱 유구한 역사적 사실이 상징적으로 감추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신화 자료가 다소 미흡하나 단군신화를 통해 나름대로 한국 고대의 문화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전통을 통찰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의 건설을 위한 창조의 계기로서 삼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최근 새로 얻어지고 있는 고고학적 성과와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볼 때 이러한 기대는 지극히 현실적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8종에서는 대부분 신화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장덕순에⁸⁾ 의해 이미 체계화되었고 문학 교과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7) 왕빈,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1980, 13~43쪽.

8)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표 2> 설화의 갈래와 특성⁹⁾

구분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성 인식	진실성을 믿음	흥미와 교훈 위주
시간 및 장소	태초의 시간과 신성한 장소	구체적 시간, 장소	서사적 과거와 불특정 장소
증거물	포괄적 증거물	특정의 개별 증거물	없거나 포괄적인 증거물
주인공	神 중심 (성씨의 시조포함)	평범하거나 나약한 인간 중심	평범한 인물
주인공의 행위	시적 능력을 발휘함	예기치 않은 사태에 좌절	인간적 행동과 초월자의 도움
결말의 특징	승고함, 종교적	비극적 운명론	권선징악, 해피엔딩
전승 범위	민족적, 씨족적	지역적 전승	범세계적 전승

이상과 같이 내용은 다른 문학 교과서에서도 풀어서 학습하도록 서술되어 있다. 이들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신화가 문학의 원류가 된다는 설명을 공통적으로 서술한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신화의 개념과 특질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군신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예비적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신화에는 많은 상징적 내용이 있음을 미리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군신화를 학습하면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적 사실은 물론 사상적, 민족적, 문학적 원류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게 된다.

문학 교육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초등학교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지도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주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독립된 교과로 지도되고 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문학의 원류로 지도되어 오고 있는 ‘단군 신화’ 단원의 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9)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하):교사용지도서』, 청문각, 2002, 99쪽.

있는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개관해보자.

2. 문학 교과서에서의 단군신화 학습 내용

문학 교과서에서의 단군신화의 수용 상황은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고전 문학)에서는 5종 중, 3종에서 서술되었고, 제4차 교육과정기 검인정 교과서 5종과 제5차 교육과정기 검인정 교과서 5종에서는 모두 수록되었다.¹⁰⁾ 다만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는 검정 도서가 대폭 늘어 18종이었으나 그중 15종에서만 수록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18종 중 12종에서 서술되었다. 이같은 변화에서 파악되는 것은 교육과정이 개편될수록 단군신화에 대한 수용 양상이 검인정 채택 수에 비해 줄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6차 이후 교과서에서의 단군 신화 학습 내용은 교재의 재질이나 내용면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고 있다. 사진과 화보의 제시, 그리스 신화, 무속 신화 등의 수용 등은 획기적인 변화라 하겠다. 신화 교육면에서도 이처럼 다양하게 다룬 점은 매우 주목된다 하겠다.

우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단군 신화를 다룬 18종 중, 12종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자(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18종 모두가 상·하권으로 나누어 편찬되었는데 모두 하권에서 다루어졌다).

1) 단군신화 문헌 내용 인용 비교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와 문학적 지도에 있어서 그 기본자료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자료의 유

10)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2, 110~155쪽.

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삼국유사』 속의 ‘단군신화’ 유형이고 둘째는 『규원사화』와 『한단고기』 속의 유형이다.

『제왕운기』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나타난 내용 등은 『삼국유사』 속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규원사화』와 『한단고기』의 내용은 47대의 단군 이름이 나오는 등 그 서술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인류학적 요소 등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삼국유사』 속의 단군신화 내용이 문학 교육의 연구 대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12종의 교과서는 단군신화의 원본을 모두 『삼국유사』 속의 <고조선 條>에서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반면 그 수록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단군신화의 문학적 지도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서의 비교 고찰을 위해 우선 『삼국유사』 속의 <고조선 條>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魏書云－乃往二千載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 ②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 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遺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生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 ③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身. 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 ④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
- ⑤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始稱朝鮮. 御國一千五百年. 壇君乃移於藏唐京.
- ⑥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天九百八歲.

한문으로 기록된 위의 내용을 중요 화소를 중심으로 압축하여 다시 해석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2천년 전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조선을 개국하였는데 요(堯)와 같은 시대이다.
- ② 환인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위하여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태백산으로 내려 보냈다. 환웅은 3000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 한다. 환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 ③ 신웅이 곰과 범에게 쫓과 마늘을 먹고 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3·7일 만에 곰만 견뎌내어 사람이 되었다.
- ④ 웅녀와 환웅이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
- 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세웠다.
- ⑥ 후에 아사달에 은신하여 산신이 되었으며 수명이 1908세였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단락 ①의 내용은 역사적 서술의 요약이라 하겠고 단락 ②·③·④ 내용들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신화적 서술이다. 단락 ⑤의 내용도 역사적 내용이라 하겠고 ⑥은 ‘산신’ 화소가 있어 상징적 의미가 많다. 문학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각 교과서별로 인용상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편의상 각 교과서의 대표 저자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표 3> 삼국유사 내용 인용 비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김대행	김병국	김삼태	김윤식	박갑수	박경신	박호영	오세영	우환용	조남현	최 웅	한계전
I	x	x	x	x	x	x	x	x	0	x	x	x
II	0	0	0	0	0	0	0	0	0	0	0	0
III	0	0	0	0	0	0	0	0	0	0	0	0
IV	0	0	0	0	0	0	0	0	0	0	0	0
V	0	0	0	x	0	0	0	x	0	0	0	0
VI	0	0	0	x	0	0	0	x	x	0	0	0

이 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난다. 단군신화를 문학적으로 다룰 때, 2 교과서에서 단군이 산신(山神)이 되었다는 부분이 빠진 것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한국문학에서 단군신화의 여러 화소(話素)가 이후 서사 문학의 원류로 작용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또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II-III-IV-V(생략 가능)-VI의 내용은 있어야 문학적 지도상 효과가 크다고 본다.

참고로 한국 문학에 변용될 수 있는 단군신화가 함축하고 있는 신화소(모티브, motif)를 단락별로 모두 추출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단군신화에 함축된 신화소(motif)

구분	줄거리 또는 神話素	모티브(motif), 줄여서 m	
II	1	昔有桓因	태양m, 천신m, 낙원(이상향)m
	2	庶子	서자m, 갈등m
	3	桓雄	원조자m, 영웅m
	4	數意天下	욕망m, 탐색m
	5	貪求人世	구세주m
	6	父知子意	원조자m
	7	下視三危太伯	탐색m, 3m, 聖山(明堂)m
	8	可以弘益人間	낙원(이상향)m
	9	乃授天符印三箇	神物m, 3m, 媒介m
	10	遣往理之	神婚f m
	11	雄率徒三千	移住m, 3m
	12	降於太伯山頂	강림m, 聖山m, 世界여행m
	13	神壇樹下	聖廟m, 강림m, 媒介m
	14	謂之神市	낙원(이상향)m
	15	是謂桓雄天王也	영웅m, 巫祖m, 변신m
	16	將風伯雨師雲師	도술m, 3m
	17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주술m, 영웅m
	18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영웅m, 3m
	19	在世理化	영웅m
III	1	時有一熊一虎	갈등m
	2	同穴而居	동굴m, 사랑m
	3	常祈于神雄	주술m, 원조자m, 매개m
	4	願化爲人	욕망m, 변신m

	5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	원조자m, 靈物媒介m
	6	曰爾輩食之	神話m
	7	不見日光百日	금기m, 婚事障礙m
	8	便得人形	변신m
	9	熊虎得而食之	도술mm
	10	忌三七日	금기m, 3m
	11	熊得女身	변신m
	12	虎不能忌而不得人身	恨m, 탈출m
IV	1	熊女者無與爲婚	결혼m
	2	故每於壇樹下	聖樹(神樹)m, 매개m
	3	呪願有孕	呪術m, 求愛m, 祈子m
	4	熊乃假化而婚之	변신m, 결혼(異類交婚)m
	5	孕生子號曰壇君王儉	生子m, 취임m, 영웅m
V	1	都邑移動	移住m, 탐색m, 名堂m
	2	隱於阿斯達爲山神	은둔m, 山神m, 승천m, 낙원(이상향)m
	3	壽一千九百八歲	神仙m, 長壽m

이러한 모티프들에 대한 이해는 단군신화에 대한 문학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한국문학 전반에 걸친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기여하리라 본다.

2) 단군신화 학습 내용에서 핵심 사항 비교

여기서 핵심 내용이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군신화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고려되는 내용으로서 역사적 내용, 사상적(이념적) 내용, 민속적, 문학적 내용 등을 의미한다. 고유 신앙적 요소는 오늘까지 민속에 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민속에 포함시켰으며 ‘기타’에는 단군신화의 가치 또는 현대적 의미들을 서술한 것 등을 정리하였다. 문학적 학습내용은 따로 장을 나누어 분석하기로 하겠다. 핵심 내용을 편의상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단군신화 학습 내용 분석(가)

	1	2	3	4	5	6
건국이념 (홍익인간)	김대행	김병국	김상태	김윤식	박갑수	박경신
	0	0	0	0	0	0
역사성	단기 의미	개국의 신성성 상징	지배자 이데올로기 상징	개국의 신성성	개국의 신성성과 정당성 상징	개국 기원 단기 기원
풍백, 우사, 운사의 상징		농경사회	주술사, 농경사회	농경사회	농경사회	농경사회
민족성	신성 민족	천손의 혈통	민족의 자긍심	신의 혈통	천신의 후예	주체적 민족
사상성	고유 정신	고대인의 세계관 반영		인본주의와 문화지향 이념	인본주의	광명승배사상, 인본주의
환웅+곰 (부족의 결합)	天, 地, 人의 조화	천신족(이주족)과 지신족(토착족) 결합	동족끼리 결혼 금지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	이주족과 선주민의 결합	天地 결합이 생명의 기원
꿈의 변신과 상징성	부족 우월성	통과의례	고난 극복의 민족성	神聖 과시	고난 극복의 지혜를 소중히 하는 민족	통과의례
민속적 내용	계천의식, 고대의 풍속 합축	신단수, 우주목	통과의례		산신, 농사신, 무당에 의한 건국 서사시	
기타	단군신화의 보편성 설명	현대사회에서 신화와 같은 현상 논의	단군신화와 국가적 행사의 의미	민족 일체감 고취 역할	민족 통합 조성	

※ 편의상 ‘홍익익간’ 내용은 사상성과 구분하였다.

<표 6> 단군신화 학습 내용 분석(나)

	7	8	9	10	11	12
건국이념 (홍익인간)	박호영	오세영	우한용	조남현	최 웅	한계전
	0	0	0	0	0	0
역사성	유구성	천손족		민족사의 출발	천신의 후예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역사 반영
풍백, 우사, 운사의 상징	농경사회		농경사회	주술사, 농경사회		주술사
민족성	천손의 혈통 단일성	민족적 긍지	선민의식	민족의 자긍심	주체적인 민족	신성한 민족
사상성	한민족 사상의 원류		인간중심사상		인간중존	고대인의 사상
환웅+곰 (부족의 결합)	천지의 결합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	同族 결혼 회피	천신족 환웅과 곰토텐족의 결합

꿈의 변신과 상징성	인본주의		혼돈의 지상을 질서화 하려는 환인, 환웅의 욕구를 우의적 표현	성년 통과의례	곰토텐 부족의 승리	통과의례
민속적 내용	애니미즘, 주술 효능 (쑥, 마늘)	고조선 시대의 신앙	禁忌	무당의 주술	쑥의 주술적 쓰임(辟邪)	굿, 주술
기타	건국에서 투쟁의 과정이 없다	단군신화의 문화적 영향 토의	단군신화에 나타난 상징과 현대의 것과 대비	환웅의 건국이 핵심이고 단군 이야기는 부수적	단군신화의 현대적 의미 토의	오늘날 우리 역사에 비추는 의미 생각해보기 학습

이 표 ‘기타’에서 서술된 ‘현대적 의미’라는 것은 단군신화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기여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전통’은 현대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때 단군신화가 21세기 문화에 기여하는 바를 토의, 토론하는 학습방법은 매우 의미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현대인은 겉으로는 신화를 황당한 것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신화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신화적 사고를 통해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단군신화는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홍익인간 이념, 민족적 긍지 등을 통해 국가의 위기 시 한민족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갖게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 외에 문화콘텐츠로서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3. 문학적 학습내용 서술 비교

단군신화의 문학적 학습 접근하는 방향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신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학습이고 둘째는 문학사 측면에서 한국문학의 원류와 문학적 전통의 중요 화소(motif=모티프)를 다루는 경우이며 셋째는 문학의 갈래(장르) 측면에서 서사문학의 대

표적 작품으로 다루는 경우이고 셋째는 단군신화의 현재적 접근이다.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각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문학적 지도 내용 분석(가)

	1	2	3	4	5	6
신화개념 지도	김대행	김병국	김상태	김윤식	박갑수	박경신
신화개념 지도	0	0	0	0	0	0
문학사적 위치	민족 문학의 출발점	서사문학의 원형	서사시 원형	민족문학 원류		서사문학 모태
비교신화학적 설명	주몽신화	주몽신화	그리스 신화	주몽	동명왕 신화	동명왕 신화
三代記모티프	0	X	0	0	0	0
다른 모티프	0	여성 수난	영웅 모티프	X	X	x
기타(스토리텔링 교육)	‘곰’을 주인공으로 새로운 이야기 꾸미기		단군신화와 고조선 역사와의 관계 토론	곰 이야기 달리 만들기	변신에 나타난 고대인 사교방식 토의	사물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 써보기
사진 및 화보	일연 사진, 신단수 그림 (환웅+곰+범)	일제가 단군 존재를 인정한 서적에 관한 신문 기사	태백산의 신단수 그림	단군 영정, 무제사당 화상석	그리스 올림프스 산과 마니산에서의 채화 사진	단군영정, 곰, 범의 동굴생활 그림

<표 8> 문학적 지도 내용 분석(나)

	7	8	9	10	11	12
신화개념 지도	박호영	오세영	우환용	조남현	최 응	한계진
신화개념 지도	0	0	0	0	0	0
문학사적 위치	소설문학의 원동력	0	기록문학에 영향	서사문학 모태	0	우리 문학의 원형
비교신화(대상)	동명왕 신화, 조신설화	x	동명왕 신화, 박혁거세 신화	동명왕 신화	주몽 신화	동명왕 신화
三代記모티프	0	0	x	0	0	x
다른 모티프		x	x	여성 수난 모티프	x	x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텔링 교육 등)	x	x		다른 나라 신화 거론	곰 이야기 달리 만들기	
사진 및 화보	단군영정, 환웅과 곰+범의 그림	삼국유사	단군 영정, 삼국유사	단군 그림, 태백산 천제단, 마니산 참성단	단군영정, 곰, 범 그림	단군 영정 (이시영 소장본), 무제사당 화상석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종 모든 교과서가 신화의 개념 지도에 대한 학습내용과 단군신화가 한국문학의 원류로 인식하게 하는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학적 전통의 구체적 지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의한 문학교과서에서 단군신화 학습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야기 만들기,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학습내용이다. '이야기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하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는데 오늘날 영국이 '이야기 학습(창의력 훈련)'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성장까지 이루게 하는 사례 등은¹¹⁾ 참고할 만하다.

4. 분석 결과와 제언

단군신화를 서술한 12종 교과서를 두 갈래로 나누어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는 단군신화의 서술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의미라고 고려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았고 둘째로는 문학적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홍익인간 건국이념을 모두 중요 학습내용으로 제시되었고 역사성 내용은 지은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우리 민족의 신성성, 인본주의 사상 등에 관한 서술은 대체로 공통되게 나타났다. 환웅+곰에 대한 해석, 곰의 변신과 상징성, 민속적 설명 등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서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체적으로 볼 때, 교과서 저자들이 큰 주제, 즉 홍익인간 이념, 민족의 신성성 등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비중을 두어 편찬하였으며 세부적인 면에서는 저자의 단군신화 인식의 차이로 서술 내용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

11) KBS 1TV 2006.3.12, 『비틀즈에서 해리포터까지 영국의 21세기 산업혁명』.

이 바로 단군신화에 대한 교육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존재하는 여러 민속 가운데 산신제, 당제, 산속(産俗) 등은 단군신화와 관련되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극히 미흡한 점은 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다.

둘째로 문학적 내용 서술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여 보았는데 여기서는 12종 교과서 중, 대부분이 그 서술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단군신화가 한국 서사문학의 원류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교신화학적 설명(주로 동명왕 신화, 주몽 신화 등과 비교), 삼대기 모티프 등에 대한 학습내용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었다. 이같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단군신화의 문학적 연구 성과들을 일부 참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한 지도 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교과서 저자들은 단군신화에 대한 분야별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 또는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운식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운식은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에서 단군신화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현황 및 교육적 성격 등을 고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단군신화의 교육적 필요성의 지적이 주목된다.

- ① 한국사의 기원과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② 한국 문화의 원형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③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이념(홍익인간 이념 등)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¹²⁾

위의 지적 가운데 ①과 ③은 문학 교과서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으나 ②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였다. 한국 문학의 원형에 대해서 최운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 최운식,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 『국어교육』 제79·8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372쪽.

- ① 단군신화 속에서는 ‘지상국 건설의 현세주의적 이념’이 표출되고 있는데 후대의 문학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운몽》, 《삼생록》 등이다.
- ② 꿈의 소원 성취 욕구에 의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사람으로 변신하는데 이러한 모티프 또한 후대의 문학적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몽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 주인공들의 고난 극복담과 설화 <김현감호(金現感虎)>, 고소설 《옹고집전》, 《박씨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③ 환웅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천부인(天符印)’은 신성의 징표인데 이것 또한 후대의 문학에서 ‘신물(信物) 모티프’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설씨녀와 가실> 이야기와 고소설에서 사랑의 징표로 주고받는 옥지환 등과 관계되는 이야기 등이다.¹³⁾

이어서 단군신화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과 풍습의 원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 또한 단군신화의 교육에 크게 참고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 ① 단군신화에는 천신승배 신앙과 산신 신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무속에서 신앙되는 자연신 계통은 단군신화와 맥을 같이 한다.
- ② 환웅이 내려온 자리 신단수는 ‘신수(神樹)’ 모티프가 되는데 이는 우주의 중심과 신의 통로로서의 의미, 영생의 의미를 지닌 순환성을 지니고 있는데 오늘날 민간에서 신앙하는 신당(神堂)과 밀접하다.
- ③ 호랑이 토맹.
- ④ 기자(祈子)의 민속·치성(致誠) 기자, 주술(呪術) 기자, 삼칠일 금기 등.
- ⑤ 풍백, 우사, 운사가 농경생활의 흔적을 의미한다고 볼 때, ‘농자천하대본(農者天下大本)’의 기치 아래 시행되는 여러 세시풍속과 관련된다.¹⁴⁾

이상과 같이 한국문학의 원형과 우리 민족의 고유 신앙과 풍속의 원형으로서 단군신화를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문학 교과서 편찬에서 한층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단군신화의 내용은 단지 신화시대의 산물로만 지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13) 최운식, 앞의 논문, 389~391쪽.

14) 최운식, 앞의 논문, 391~393쪽.

날에도 전승되어 살아있다는 사실을 교육시킬 때 더욱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보겠다.

‘3모티프’에 관한 근원과 관련 작품¹⁵⁾ 및 단군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에서도 더욱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¹⁶⁾

한편 최운식은 단군신화의 함축적 의미를 학교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군신화에 대한 교사(723명)·학생들(1206명)의 의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교사들은 단군신화의 교육이 통일을 대비한 동질성 교육에 기여할 것이고, 지도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나타난 반면 학계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잘 몰라 지도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¹⁷⁾ 이러한 내용은 이 문학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각급 학교 교사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단군신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에 대해 좀 더 연구하여 수업에 활용하여야 하겠고 가능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집약한 자료를 교사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꿈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부분이 가장 재미있게 생각하지만 단군이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이 43.6%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밝히고 이는 단군신화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반성을 요한다고 지적하였다.¹⁸⁾ 이러한 결과도 앞으로의 단군신화 교육방법에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15) 이재원, 『단군신화 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169~277쪽.

16) 이재원, 「단군신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IV) - 민속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논문집』 제4호, 한국체육대학교, 1999, 85~99쪽.

17) 최운식, 「단군신화 교육의 현황과 지도 방향」, 『청하 성기조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同 간행위원회, 1993, 1311~1321쪽.

18) 최운식, 앞의 논문, 376쪽.

문학 교과서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는 미흡하였다. 단지 토테미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끝났을 뿐이다.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곰토템적 요소가 짙은 축제가 재현되고 있으며¹⁹⁾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들과 북남미 대륙으로 건너간 인디언들 사이 전승되고 있는 곰토템적 설화가 TV방송으로 방영된 바도 있다.²⁰⁾ 한편 탁월한 동물학자들에 의해 곰에 대한 생태가 상세히 연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에서 반달곰 새끼들을 양육하여 야생으로 보내는 사업이²¹⁾ 전개되어 곰토템에 대한 인식 전환에 상당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이같은 자료들을 편의상 요약하면 곰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영리한 동물이며 특히 동면하는 생태로 인해 재생력을 갖고 있는 동물로 숭상받기에 충분하였고 특히 인간들이 새끼 때 많이 길러 친연성이 깊은 동물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곰의 은근함과 끈기 있는 생태학적 장점은 교육을 통해 오히려 민족성의 장점으로 인식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단군 신화 속의 곰화소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 것이며 곰화소를 없애야 된다는 소송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III. 결 론

지금까지 국사교과서 속의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내용 개정을 계기로 하여 문학 교과서 속의 ‘단군과 고조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9) 한민족의 기원 탐사 ‘코미족을 찾아서’, 1998.6.24 KBS ITV <세상은 넓다>.

20) 울치족의 곰토템 - 1998.1.12 SBS TV <몽고리안루트 3부>

북서 태평양 인디언의 곰설화 - 2002.2.21 내셔널지오그래픽 TV.

21) 자연으로 돌아간 반달가슴곰 - 2002. 2.11-12 SBS TV.

특히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18종에서 단군신화를 단원으로 수용한 것은 12종이었으며 그 내용은 다양하였다. 단군신화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홍익인간 사상, 민족의 신성성, 인본주의 사상 등에 관한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서술되었으나 기타 역사적 내용, 종교적 내용, 민속적 내용, 문학적 내용 등은 각기 차이를 보였다.

문학적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서술된 것은 단군신화가 한국서사문학의 원류로 다루었고, 그 구체적 사례로 비교신화학적 설명, 삼대기 모티프 등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평가할 때, 그간의 연구 성과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특히 단군신화가 한국문학의 원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모티프의 변용에 대한 서술이 빈약하고 각종 민속에 나타난 전승적 요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집약한 자료를 교사들에게 지원하여 한층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등에서의 ‘홍익인간’ 등의 중요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요구 된다. 특히 고평화소에 대해서는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설득력있는 지도를 하여 단군신화의 함축적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하겠다. 나아가 일본과 유럽과 같이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 교육을 신장시켜 각종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을 집필 도중 2007년 5월 23일 서울대 외에 11개 수도권 사립대(인문사회계열)에서도 2010학년도부터는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

를 필수 선택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반가운 일이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 더욱 기대하는 것은 최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성과와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더욱 충실한 교재가 나와 학습 효과를 상승시키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단군문화’ 또는 ‘단군콘텐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단군과 고조선’ 교육을 하여 하루속히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날로 팽창하는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 주제어 : 단군, 고조선, 단군신화,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모티프, 민족정체성

<참고문헌>

1. 교과서 자료

1) 문학 교과서

-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하)』, 교학사, 2002.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하)』, 한국교육미디어, 2003.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하)』, 태성, 2004.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하)』, 디딤돌, 2003.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하)』, 지학사, 2004.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하)』, 금성사, 2002.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하)』, 형실사, 2004.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하)』, 대한교과서, 2002.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하)』, 두산, 2002.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하)』, 중앙교육진흥연구원, 2003.
최 응 외, 『고등학교 문학(하)』, 청문각, 2004.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하)』, 블랙박스, 2002.

2) 도덕, 윤리 교과서

- 교육개발원, 『중학교 도덕 1』, 문교부, 1982.
서울사대, 『중학교 도덕 2』, 교육인적자원부, 2002.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국민윤리』, 문교부, 1979.
서울사대, 『고등학교 윤리』, 교육부, 1996.
서울사대, 『고등학교 도덕』, 교육인적자원부, 2002.
서울사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인적자원부, 2003.

3) 사회, 철학 교과서

-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사회1』, 문교부, 1984.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사회1』, 문교부, 1989.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사회Ⅱ』, 문교부, 1985.

충남교육위원회, 『고등학교 철학』, 대한교과서, 1987.

4) 교육과정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1992.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 기준』, 교육부, 1994.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5.

교육부, 『집필상의 유의점(수정본)』, 교육부, 1995.

2. 논 문

이계학, 「단군신화의 교육학적 고찰」, 『단군·단군신화·단군신화』, 고려원, 1992, 89~105쪽.

김안중, 「단군신화의 철학적 분석-단군신화의 교육학적 분석」, 『정신문화연구』 86 봄호, 87~96쪽.

권정인, 「설화교육연구」, 국민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류위자, 「단군신화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원, 2001.

김혜영, 「제6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구성체제 분석」, 이화대 교육대학원, 1997.

박애나, 「한국 건국신화와 고등학교 신화교육」,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1998.12.

고은희,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구성체제 분석-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18종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2000.6.

박미경, 「고등학교 설화교육의 내용 선정·조직·방향 연구-문학교과서의 수록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0.2.

신현주, 「단군신화의 문학적 변용」,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1993.

이현주,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나타난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고조선, 고구려, 신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12.

유억중, 「신화교육론-〈단군신화〉와 〈동명왕신화〉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4.2.

<Abstract>

The study on the Dangun and Old Joseon of a textbook

—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of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

Lee, Jae-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n the Dangun and Old Joseon of the 7th curriculum of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Myth is a cultural result from long national experiences as well as a transmission reflecting a collective experience. Dangun Myth dates back to the earliest period of this country among existing national myths. It reveals Korean views of the universe, history and human being in most systematic ways. Thu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deas and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established based on historical backgrounds of five millennia were derived from Dangun Myth.

Dangun Myth is closely related to the identity of Korean people. The national was examined through the factors of traditional culture : the basic character of Dangun Myth, understanding of folk, idea, respecting ancestors and heaven, etc. Dangun and old Joseon educ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feasible method of overcoming all social problems through historic awareness of one common destiny community.

Especially in literature education the national humanity spirit will be

experienced as vivid literature experience by imagination. The dynamic of Dangun Myth appear efficiently in these days and influence us by transcending times.

※ Key Words : Dangun, Old Joseon, Dangun Myth, the 7th curriculum,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 moyif, identity